

원효사 음식점단지 충효동으로 옮긴다

〈취가정 일대〉

상가 39곳 모두 이전

230억 투입 2020년 마무리

이전지 자연상태 복원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가 2020년 대 중반 사라지게 된다. 원효사 계곡물에 발 담근 뒤 산장에 둘러 닭백숙에 막걸리 한잔 곁쨌던 풍경도 몇 년 후면 한 장의 추억으로 남게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무등산 원효사 계곡을 중심으로 영업중인 상가 39곳을 2024년까지 광주시 북구 충효동 취가정(醉歌亭) 일원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 심층부 계곡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후 상가들은 그간 무등산 경관과 환경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심사지구와 더불어 무등산 산행의 길목이자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처로 오랜 기간 사랑받았던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이주 논의가 본격화됐다.

공단과 공원사무소는 지난해 7월 이전에 관한 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설명회(2회), 주민 설문조사(3회), 유관기관 보고회(3회) 등을 거쳐 최근 이주 계획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이주 대상지로는 광주시 북구 충효동(562-2번지) 취가정 일원이 선정됐다. 이주 후보지에는 취가정 일원과 함께 수리마을, 금곡마을, 등촌마을, 배재마을 등 북구 지역 5곳이 올랐는데, 주민 선호성, 접근성, 환경성, 상업성, 실현 가능성 등을 두루 감안한 결과 취가정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

공단 측은 취가정 일원에 4만7000㎡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단지에는 원효사 집단시설지구에서 이주하기로 한 상가 38가구를 위한 상업시설(1만



교포 여대생 극적 탈출 15일(현지시각) 호주 시드니 도심이 한 카페에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의 지지자로 보이는 괴한들이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질로 붙잡혔던 한국 교포 여대생 배모양이 탈출에 극적으로 성공한 뒤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2540㎡·가구당 330㎡)과 화장실, 주차장 등 공공 시설(1만3155㎡), 녹지공간(2만1305㎡)이 포함된다. 공단 측은 이주민 보상비와 단지 조성비, 철거 및 복원비에 23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원효사 상가 주민들은 앞서 이주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전체 39가구 중 32가구가 별도의 이주단지가 조성된다는 조건으로 이주에 찬성하는 응답을 내놨다. 나머지 7가구는 개별적으로 이주하는 등 이주방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주단지로 이주를 찬성한 32가구 중 19가구는 소재원과 가사문화관 등 다수의 관광자원이 자리잡은 취가정

일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동순 무등산국립공원 과장은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내 상인들이 취가정 일원으로 옮겨가는데 모두 찬성한다 이주 계획 자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광주시의 협조를 얻어 2020년대 중반까지 이전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 측은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내 상가를 취가정 일원으로 이주시킨 뒤 상가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자연상태로 회복시킬 예정이다. 원효사 주차장은 대중교통용으로만 활용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지만 출두 "아는대로 말하겠다"

검찰, 문건 유출·미행설 등 조사

'정운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 이 15일 오후 2시 28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했

고, '정운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방문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미행설' 등과 관련해 그동안 언급을 피했던 박 회장은 전날 검찰의 출석 통보에 전격적으로 응하며 조사를 받게됐다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운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사를 올해 5월 15일 만년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운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청와대가 의심하는 이른바 '인회'와 박 회장의 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회장과 정운회씨의 대질조사 필요성을 낮게 보면서도 수사 상황에 따라 대질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에 실려 80년 오월 알린 詩

김준태 "아아, 光州여!" 英譯 출간

광주정신 세계화 기대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김준태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중)

80년 오월 광주를 대표하는 김준태 시인의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Gwangju, Cross of Our Nation)'(한스미디어)가 영역(英譯) 출간된다. 시집에는 영역된 두 작품 외에도 일어 한 작품, 중국어 한 작품이 수록돼 있어 문학을 통한 광주 정신의 세계화가 기대된다.

5·18 직후 1980년 6월 2일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매일신문 1면에 실린 '아, 광주여 우리나라 십자가여'는 폐허 속에서 피어난 광주의 절규였다.

"이 시집은 광주 시민의 대동정신,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 5월 영령들과 하늘 땅 같은 사람들의 생명, 하나 됨의 세상을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바친다."

김 시인은 시집 번역 출간을 계기로 광주정신이 선양되고 더 이상 광주 위상이 폄훼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전남매일 신춘문예 출신으로 올해로 등단 45주년을 맞은 김 시인은 그동안 인권과 생명 존중 사상을 근간으로 한 시들을 발표해왔다.

'아, 광주여 우리나라 십자가여' 첫 번째 영역은 80년 6월 당시, 하버드 영문과 데이비드 맥켄 교수에 의해 시도됐다. 한국학에 남다른 관심이 있던 데이비드 맥켄 교수의 번역으로 광주의 참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 광주여 우리나라 십자가여'가 외신을 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지로 흘러나가기까지는 적잖은 곡절이 있었다. 계엄당국 검열로 상당 부분 시가 삭제돼 일부만 지면에 나갔던 것. 그러나 활자로 본을 떠 제작을 하던 시절이라 원본이 남아



1980년 6월 2일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매일신문 1면에 실린 '아, 광주여 우리나라 십자가여'

〈광주일보 자료사진〉

있었다. 신문사에서 이를 복사해 10만부 가량 찍었고, 결국 원문 전체가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두 번째 영역은 1990년대 여수 출신 송재평 시가고 메리글러브 대학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작년에 작고한 송 교수는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포함 10여 편을 영역해, 메리글러브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일본어 번역은 80년 7월 당시 '세카이' 잡지에 수록되었는데 시 전문이 번역돼 실릴 만큼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중국어 번역은 대만 대학 주리티 교수가 김정환 시인의 주선으로 번역, 대만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칼보니아 킬링필드를 비롯, 독일 나치 수용소 등 세계 민주주의 현장을 가 보면 공통점이 있다. 문학작품이 동반이나 조형물로 형상화 돼 있어 역사의 참상을 생생히 증언한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영역시집과 '발사', '달팽이 뿔' 등 두 권 신작 시집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27일 오후(4시~6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다. 문의: 010-4137-446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늦보다 아름답다 여수의 밤 ▶11면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New GLA-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경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GLA 200 CDI 2,143cc 1,590kg, 7G-DCT 복합연비 16.2km/l (도시연비: 14.3km/l, 고속도로연비: 19.5km/l),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2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